



보도시점

2026. 7. 22.(수)
간담회 시작(별도 안내) 이후

배포

2026. 7. 22.(수)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 위한 보건의료 AI 대전환

- '생명을 위한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 비전 아래, 3대 전략10대 정책과제 제시 -
- 동네 보건소·의원에 AI 패키지 보급, 응급 통합AI 플랫폼으로 골든타임 사수 -
-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을 잇는 '공공의료AI 고속도로'로 지역 의료격차 해소 -
-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기반 한국형 의료AI 개발, 글로벌 리더십 확보 -

【「AI 기본의료 전략」 핵심 내용】

1.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

< 1-1. 일차의료 인공지능 대전환(AI) >

- ▶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진료, 행정, 건강관리 등을 보조할 '일차의료 AI 솔루션' 지원
- ▶ 취약지 소재 필수 진료과목 의원 대상 '일차의료 AI 바우처' 지원
- ▶ 섬, 벽지 등 의료취약지는 재택 방문간호사를 통한 인공지능(AI) 기반 비대면 협진 시범 적용
- ▶ 만성질환 관리 AI 활용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 1-2. 응급의료 AI >

- ▶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 AI 분석을 지원하는 '(가칭)응급 통합 AI 플랫폼' 실증·확산
- ▶ 응급의료 자원과 병원별 최종 진료역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적기 이송을 지원하도록 '중앙 응급관제 시스템' 고도화
- ▶ 응급환자 모니터링, 병원 자원관리 등 응급실 의료진 판단을 돕는 '스마트 응급실' 개발

< 1-3. 환자 중심 AI >

- ▶ 어려운 검진, 진료 내용을 AI가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국민 AI 건강비서' 서비스 제공
- ▶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를 통해 진료기록, 의료영상의 병원 간 공유체계 구축

2. 전국 어디서나 첨단의료를 누리도록 AX 기반 구축

< 2-1. 공공의료 AX >

- ▶ 전국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72개소)이 최첨단 AI 솔루션을 활용하도록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
- ▶ 노후화된 지방의료원 전산시스템을 첨단 정보시스템으로 교체 추진
- ▶ 낙후된 지역 공공병원은 최적 AI 활용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AI 친화 데이터 표준화 지원

< 2-2. AI Native 병원* >

* AI Native 병원: AI 기반으로 진료, 간호, 수술, 원무 등 원내 서비스 전반 재설계되는 병원

- ▶ 병원 내 모든 서비스를 AI로 지원하는 (가칭)'AI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추진
- ▶ 차세대 AI 기술을 검증하고 의료 AX 선도모델을 구현하는 권역별 AI 특화병원 구축 추진

< 2-3. 소버린 의료 AI >

- ▶ 공공기관 및 국립대병원별 보유하고 있는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통합 컨설팅' 추진
- ▶ 공공, 임상, 연구 데이터를 결합·개방하는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구축
- ▶ 국내 임상데이터 및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한국형 의료 AI 개발
- ▶ AI 시대에 맞는 비식별 가명 데이터 규제 합리화 추진

3. 지속 가능한 AI 의료혁신을 위한 의료생태계 마련

< 3-1. AX 적정 보상 >

- ▶ AI 기반 최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마련

< 3-2. 지역 상생 생태계 >

- ▶ 지역 국립대병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국립대병원 연구 역량 강화
- ▶ 지역 특화 사업(로봇, 바이오헬스 등)과 연계해 지역 AX 거점 조성

< 3-3. 안전한 의료 AI 활용 및 인재 양성·유치 >

- ▶ 의료 AI 윤리 및 보안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3-4. 우수한 AI 인재 양성·유치 >

- ▶ AI·바이오헬스 분야 해외 유수의 연구자 및 국내 우수 인재 양성·유치

< 3-5. 글로벌 AI 리더십 >

- ▶ 글로벌 AI 허브를 구축하고 세계 바이오 서밋 등을 통한 의료 AI 분야 글로벌 리더십 강화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 AI 대전환 계획을 담은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번 「AI 기본의료 전략」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발족한 'AI 기본의료 TF'를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관련 전략 수립을 위한 과제들을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명시하는 등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수차례 논의를 거쳤다.

이번 전략에서는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인공지능(AI) 의료혁신 방안이 담겨있으며, 이를 통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의료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전략의 세부 내용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 ▲전국 어디서나 AI 첨단 의료를 누리도록 하는 AX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AI 의료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 등 3대 전략·10대 정책과제로 구성되었다.

1.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AI 의료혁신

【우리 동네에서도 대학병원급 AI 진료】

의료 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진과 보건소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AI 패키지*를 도입('27~)한다. AI 솔루션들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의료진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 ①진료역량 강화형: 영상판독 보조, 의무기록 자동 생성 등 진료보조 AI 패키지,
- ②건강관리 고도화형: 만성질환 관리, 건강기록 기반 질병 예측 등 건강관리 AI 패키지

취약지에 있는 필수 진료과목* 의원에는 '일차의료 AX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취약지 거주 주민들도 AI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또한 섬이나 산간지역 등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은 재택 방문간호사가 AI를 활용해 원격지 의사와 함께 보다 정확한 비대면 협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 등은 AI를 활용하여 ▲환자 문진 결과를 자동으로 요약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생성형 에이전트(Agent)를 기반으로 지역 의료수요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해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ABM(Agent Based Model): 개별 주체(Agent)들의 상호작용을 AI로 시뮬레이션하여 거시적 현상이나 패턴을 분석·예측하는 모델

【AI가 지키는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급차가 환자를 받아줄 적정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으로 AI를 활용하는 ‘(가칭)응급 통합 AI 플랫폼*’의 실증·확산을 추진한다.

* ‘멀티모달 AI 기반 지역완결 스마트 응급환자 이송시스템’ 개발(한국형 ARPA-H, 경북대병원),
(※ 소방청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 및 중앙 응급의료 정보망과의 연계 추진)

아울러, 의식 소실 등 응급환자가 자신의 정보열람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사전 동의가 된 가입자에 한해 응급의료진이 「나의 건강기록」(PHR) 열람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구급일지·간호 초기 평가 등 응급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응급환자를 모니터링하고 병원 자원의 효율적 배정을 돕는 ‘응급실 특화 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도 개발한다.

* '24~'28, '응급실 특화AI 임상지원 시스템' 개발(R&D, 복지부)

이와 함께, 실시간 이송 정보와 병원별 배후 진료역량을 평가·분석하여 전국 어디든 적정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정보망’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통합형 응급의료 정보 서식을 기반으로 119 구급상황 센터-중앙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기관 간 실시간 정보교류 체계도 구축하고자 한다.

【내 건강기록과 함께하는 진료】

병원을 옮길 때마다 광디스크(CD)로 의료영상을 복사하고, 중복 촬영이 빈번했던 불편을 「나의 건강기록(PHR)*」을 기반으로 병원 간 진료정보를 공유해 해소하고자 한다.

* PHR: 여러 병원에 흩어진 나의 진료 정보를 한 번에 조회·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아울러, 「나의 건강기록(PHR)」과 연계해 환자가 원할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처방전·진료기록 등을 요약하고 해석하는 '국민 AI 건강비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 (주요 기능) ▲의학 용어의 일상어 요약·해석 ▲대화형 비(非)의료 건강상담 챗봇 등

한편, 표준화된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전원 시, AI가 방대한 진료 기록도 단시간 내에 분석·요약하고, 진료의뢰서 초안 등을 생성하여 환자가 병원을 옮기더라도 자신의 진료기록을 기반으로 한 끊김 없는 진료를 보장하고자 한다.

*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통해 임상데이터 표준을 규정

2. 전국 어디서나 첨단의료를 누리도록 AX 기반 구축

【전국 공공병원 AI 대전환,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AI 전환에 한계가 있던 지역 공공병원은 최첨단 AI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칭)공공의료AI 고속도로*'에 연결할 예정이다.

* ▲영상판독 ▲의무기록 생성 ▲환자 의뢰서 요약 등 다양한 의료 AI를 탑재한 중앙 플랫폼

2026년 하반기부터 권역(3개)-지역(6개) 책임의료기관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권역(17개)-지역(55개) 책임의료기관 72개소 전체를 '(가칭)공공의료 AI 고속도로*'에 연결한다.

* '26년 국가 AI 프로젝트 7대 대형 과제로 선정(과기정통부)

아울러, 노후된 지역 공공병원의 전산시스템을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내 임상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최적의 AI 활용 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다.

* '26~'27, AI 솔루션과 연동 가능한 구독형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개발(과기정통부)

또한, 만성질환, 다빈도 질환, 소아·청소년 분야 등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 AI 개발·실증도 추진한다.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및 AI 특화병원 구축】

방문부터 귀가까지 환자가 경험하는 병원의 모든 서비스를 AI로 제공하는 '(가칭)AI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국립대병원들의 공동 사용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핵심 모듈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 AI 기반으로 진료, 간호, 수술, 원무 등 원내 의료서비스 전반이 재설계되는 시스템

한편, 의료 현장에 AX 선도모델을 구현하는 권역별 'AI 특화병원'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진단·관리·예후예측 등 상용 AI(10종), ▲지역 협진을 위한 환자 기록 기반의 의뢰·회송·전원 문서 자동 생성 AI(5개 의료기관), ▲병실 모니터링, AI 회진·간호 차트 등 업무 효율화 기술(9종)를 통합 구현한다.

【흩어진 데이터를 한데 모아, 한국형 의료AI 개발】

그동안 기관별 의료데이터 파편화로 데이터 활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등이 주요 공공기관이 협업하는 '원스톱(One-Stop) 데이터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기관별 데이터 보유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가칭)보건의료 데이터 지도를 구축하고, 기관별 데이터 분석 전담팀도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형 의료 AI 학습을 위해 공공, 임상, 연구데이터를 결합·개방하는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허브를 구축함과 동시에 상업적 오남용과 데이터 유출·재식별을 방지하도록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한다.

* ①건보공단·암센터 등 공공보건의료데이터 + ②국립대병원 내 임상데이터 + ③'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내 연구데이터 등 비식별 가명 데이터

**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제정 등을 통해 ①이용 제한 ②유출 방지 ③관리감독 등 관련 제도 정비

이러한 데이터 활용 체계를 기반으로, 국내 임상데이터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기초한 '한국형 의료 AI'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외국 AI 모델 의존을 탈피하고 국내 기술로서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소버린 의료 AI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① 국내 데이터 학습, ② 독립적 AI 모델 개발, ③ AI 활용 생태계 구축
(과기정통부 독자/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과 연계, 독자 의료AI 모델 개발·고도화 추진)

한편, AI 시대에 맞도록 가명 데이터에 대해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데이터 가명 처리 시, 위험도별 차등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물리적 위험 없는 비식별화된 데이터 연구는 기관윤리심의(IRB)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 지속 가능한 AI 의료혁신을 위한 의료생태계 마련

【AI 기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

지속 가능한 의료 AI 활용을 위해 AI 기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별 AI 의료 기술의 사용에 보상하는 현행 방식*에 더해, AI 기술의 의료 성과를 평가·보상하는 체계 등을 폭 넓게 검토할 방침이다.

* (現) 의료 AI 기술은 식약처 허가 후 임상적 근거 축적을 위해 일정기간(최대 4~5년) 비급여 사용 가능, 기술의 안전성·유효성, 급여적정성 등 건강보험 정식등재 여부 평가

【지역과 함께 크는 AI·바이오헬스】

지역 국립대병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여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또한, 바이오헬스케어, 로봇 등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하여 AI 기반 혁신 기술 확산을 지원한다.

* '26~'30, 지역 거점 AX 혁신 기술 개발(R&D, 과기정통부·산업통상부·복지부)

【안전한 의료 AI 활용 기반 마련】

안전하고 윤리적인 의료 AI 사용을 위한 의료 AI 윤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 적용을 추진하고, 민간 클라우드 사용 요구와 데이터 민감성을 고려하여 '(가칭)보건의료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국가정보원 보안 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도 검토한다.

* (가칭)「의료 인공지능 윤리」 연구('26.하반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우수한 AI 인재 양성·유치】

AI·바이오헬스 분야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 및 국내 우수 인재 양성 등을 통한 AI 융합 전문 인력 유치·양성 체계도 마련한다.

* 해외 거주 연구소장, 정부/산업계 연구책임자, 최고기술자(CTO) 경력 등을 보유한 연구자('26~'28년간 연간 6명, 총 18명 유치)

【'AI 기본의료 모델' 기반 글로벌 리더십 확보】

차별 없는 AI 기반 보편적 건강보장(UHC) 실현("AI Health for ALL")을 위한 글로벌 협력 거점*으로 WHO AI 허브를 국내에 설립하고, 글로벌 보건 표준으로 확산하고자 한다.

* (유사 사례)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단독 지정·운영 중('23~)

제5차 세계 바이오 서밋('26.10)*을 계기로 '(가칭)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발표하여 의료AI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AI 기본의료 양자 협력에 K-의료 AI 기업·병원이 동반 참여하도록 전 주기에 걸친 진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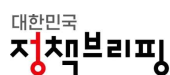
* 복지부-WHO-국제병원연맹(IHF) 공동개최('26.10.21.~22.)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AI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이다” 라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AI 기본의료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배경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겸 과기부총리는 “AI 기본의료 전략은 모두의 AI와 함께 AI 기본사회 구현의 중요한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라며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조율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에 기여해 나가겠다” 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환 (044-202-2620)
		담당자	사무관	권용진 (044-202-2621)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데이터·규제혁신팀	책임자	팀 장	유경태 (02-2224-4131)
		담당자	사무관	정지환 (02-2224-4132)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환 (044-202-2620)
		담당자	사무관	김효리 (044-202-2615)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건훈 (044-202-2320)
		담당자	사무관	박은경 (044-202-2902)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책임자	과 장	백영하 (044-202-2920)
		담당자	사무관	배세진 (044-202-2921)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유라 (044-202-2940)
		담당자	사무관	윤정희 (044-202-2943)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책임자	과 장	주 철 (044-202-2980)
		담당자	사무관	이광성 (044-202-2991)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학 (044-202-2880)
		담당자	사무관	이영우 (044-202-2403)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민구 (044-202-1930)
		담당자	사무관	이경은 (044-202-2682)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도균 (044-202-2510)
		담당자	사무관	이재혁 (044-202-2501)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책임자	과 장	송영진 (044-202-2550)
		담당자	사무관	이태경 (044-202-2563)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영진 (044-202-2710)
		담당자	사무관	김종구 (044-202-2704)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책임자	과 장	유정민 (044-202-2730)
			사무관	이민정 (044-202-2733)
			사무관	구도은 (044-202-2745)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책임자	과 장	공인식 (044-202-2790)
		담당자	주무관	김나연 (044-202-2794)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소연 (044-202-2450)
		담당자	주무관	김슬기 (044-202-2458)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정보보호팀	책임자	과 장	김재민 (044-202-2190)
		담당자	사무관	전제현 (044-202-2195)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심은혜 (044-202-2360)
		담당자	사무관	이민재 (044-202-2354)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두원 (044-202-6290)
		담당자	사무관	신건호 (044-202-6287)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책임자	과 장	장기철 (044-202-6590)
		담당자	사무관	전세준 (044-202-6595)
담당 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원세연 (02-2100-2471)
		담당자	사무관	우승연 (02-2100-3076)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	책임자	과 장	최광준 (044-203-4290)
		담당자	사무관	노진환 (044-203-4292)

<붙임> 「AI 기본의료 전략」을 통해 달라지는 국민의 삶



붙임

「AI 기본의료 전략」을 통해 달라지는 국민의 삶

구 분	의료현실	문제 원인	AI 기본의료 전략	달라지는 미래
환자 중심 AI 진료 (소비자)	❶ 병원 이동 시, 환자는 영상 CD 복사	▶병원 간 환자 진료정보 공유가 어려운 現 체계	▶개인 건강기록(PHR) 중심 병원 간 의료영상 공유	병원을 옮길 때, 내 건강 기록도 따라오고 +
	❷ 진료기록만으로 건강상태 이해 한계	▶어려운 의학용어로 작성된 진료기록	▶어려운 의학 용어를 AI가 알기 쉽게 설명 (국민 AI 건강버서)	환자 중심 AI 진료 통한 끊임없는 의료서비스
AI 기반 의료현장 업무혁신 (공급자)	❸ 필수의료진 부족으로 업무 부담 가중	▶단순 행정업무로 인해 의료진 업무 부담 가중	▶진료 및 행정보조 AI 솔루션 도입 확산	AI가 진료/검진을 보조,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 +
	❹ 응급 상황에서 개별 병원에 전화 문의	▶구급대 병원을 연계하는 실시간 플랫폼 부재	▶응급 AI 플랫폼이 실시간 이송 정보 분석, 적정 병원 탐색추천	실시간으로 적정 병원을 찾아, 적기 이송
지역 필수 공공 의료	❺ 의료진이 부족한 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관리 공백	▶지역 의료진 부족으로 충분한 의료서비스 공급 한계	▶진료역량을 강화하도록 의료 AI 패키지 보급 ▶AI 기반 비대면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취약지 거주 주민에게 AI 기반 의료/건강관리
	❻ 멀리 있는 수도권 병원 쏠림	▶지역 의료격차 심화 ▶노후화된 지역 공공병원	▶전국 공공병원을 잇는 첨단 AI 고속도로 구축 ▶지역 공공병원 전산시스템 교체	우리 지역 공공병원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 첨단 AI 의료서비스 제공
데이터 활용 + 소버린 AI 개발	❼ 파편화 된 데이터로 활용 가치 저하	▶개별 기관별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원스톱 데이터 통합 컨설팅 지원 ▶국가보건의료데이터 허브 구축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치는 높이고, +
	❸ 외국 의료 AI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맞는 서비스 한계.	▶한국형 의료 AI 부재	▶국내 보건의료데이터와 독자 AI 기술 기반 소버린 의료 AI 개발	한국인에게 맞는 소버린 의료 AI 개발